

타미 히스(Tommy Hicks)의 비전

7/25/1961

WFJM/요엘 군대 번역

다음은 미국 타미 히스 목사님(1954년, 그는 강력한 아르헨티나 부흥 운동의 주요 인물)께 주어진 놀라운 비전입니다.

제 메시지는 7월 25일 새벽 2시 30분경 캐나다 유니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계시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은 정확히 1971년 7월 25일 새벽에 3번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계시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과 마지막 때의 사역에 대한 나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남녀들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잠든 후 비전이 나타났을 때, 나는 갑자기 아주 높은 거리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온 땅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내 앞에 보였습니다. 내가 가본 모든 나라들과 많은 도시들을 알아보았고, 내 앞에 있는 큰 광경을 보면서 나는 매우 두렵고 떨렸으며, 세상이 보이는 그 순간 번개와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지면에 번쩍일 때 내 눈은 아래로 향했고 나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거대한 거인처럼 생긴 것을 보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광경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거대했습니다. 그의 발은 북극에 닿았고 그의 머리는 남쪽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팔은 한 쪽 바다에서 또 다른 바다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인지 거인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나는 갑자기 거대한 거인을 바라보았고, 그는 살고자, 아니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폐물 부스러기로 뒤덮여 있었고 가끔 이 거대한 거인은 그의 몸을 움직이고 일어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수천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흥측한 생물들은 이 거인으로부터 도망쳤다가 그가 다시 조용해지면 되돌아 왔습니다.

갑자기 이 거대한 거인이 하늘을 향해 그의 한 손을 들었고, 그 후 다른 손도 들었을 때, 이 수천 마리의 생물들은 거인에게서 도망쳤고 어둠 속으로 그리고 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거인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가 이렇게 할 때 그의 머리와 손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그의 위에 있는 폐물 부스러기와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은 것 같았고, 마치 주님을 찬양하듯이 그의 손을 하늘로 치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을 올렸을 때, 손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모든 구름이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은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현상을 지켜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 장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여쭙었습니다. 마치 내가 실제로 영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갑자기 액체 빛(liquid light)의 큰 방울이 이 거대한 거인 위로 쏟아져 내렸고, 아주 천천히 이 거인은 녹아 내리기 시작했으며, 자신을 이 지구 자체에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녹으면서 그의 전체 형태는 땅 지면에서 녹았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빛의 방울이 지구 자체를 범람시키기 시작했고 내가 이 거인이 녹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것은 지구 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포효하는 듯한 큰 천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눈을 돌렸고 갑자기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휘황찬란한 흰색의 영광스러운 인물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라들과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손을 뻗으셨을 때, 이 액체 빛이 그의 손에서 흘러 나와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부으심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손을 뻗어 내미시는 것을 며칠, 몇 주, 아니 몇 달이나 쳐다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내미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름부으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예하고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 부르심의 손을 내미시자,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거절하며) 뒷전을 치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드려 뒷전을 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움이 사방에서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리둥절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아 들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전세계에 가득 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는 중노동자들과 빨래하는 여인들이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중풍병과 질병과 소경됨과 귀머거리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름부음을 주시려고 손을 뻗으셨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고 온전해졌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손을 뻗었을 때, 같은 액체 불이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 내밀며, “내 말대로, 네가 온전하게 될 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강력한 마지막 때의 사역을 계속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쭙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것이 내가 마지막 날에 할 일이다. 나는 자벌레, 나방의 유충, 애벌레들이 파괴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들은 강력한 군대로서 전 세계의 지면을 휩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온 세상 지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갑자기 아프리카에 사는 한 남자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러시아나 중국 혹 미국 또는 다른 장소에도 이동되었고(transported), 또 반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이동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불도 통과하고 전염병도 통과하고 기근도 통과해 나왔습니다. 불이나 핍박이나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난 폭도들은 칼과 총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무리 가운데로 통과해 지나갔으나, 폭도들이 그들을 볼 수 없었고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뻗치는 모든 곳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나눌 것은 여러 번 이 비전을 검토해 보았고 많이 생각하고 살펴본 후였지만, 나는 교회를 본 적도 없었고 교파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모든 일을 행하고 행진해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은 온 세상 지면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사람들이 서서 다가오는 왕국과 그 왕국의 메시지를 전할 때,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세상이 결코 알지 못했던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들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학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꾼들이 온 세상 지면에 퍼져 전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크고 잘난 나'와 '작고 못난 너'는 더 이상 없었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는 높아졌으며,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모두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내가 이 광경을 천국에서 보고 있을 때, 이 액체 빛의 대홍수가 큰 회중들 위에 내리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회중들이 손을 들고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광경이 바로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과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 결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온 세상 지면을 두루 다니고 있을 때에, 온 땅 끝에서부터 대핍박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큰 천둥소리가 있었고, 그 천둥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다." 이 음성이 말할 때, 나는 지구를 쳐다보았고 호수들과 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갑자기 전 세계에서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서 다시 그 거대한 몸을 형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았고, 나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탄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갑자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다시 모양을 만들었고, 처음과 같이 거대한 거인의 형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아주 멋진 흰색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그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의 옷들은 티나 주름이 없었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몸 안에 모인 것 같더니, 아주 서서히 차츰차츰 곧 하늘로 만들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위의 하늘로부터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대한 몸의 머리가 되셨고, 또 다른 천둥소리가 들리며, “이는 내가 기다려온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그녀는 불로 시험을 받지만,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는 바로 내가 태초부터 사랑했던 그녀이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 내 눈이 갑자기 먼 북쪽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파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은 고통으로 부르짖었고, 건물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네번째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내 진노가 지구에 쏟아지고 있다.” 온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대접이 온 세상 지면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시들과 온 나라가 멸망으로 치달아 무너지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심히 떨었습니다. 나는 우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숨으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속의 동굴들이 열려 그들이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려고 물에 뛰어 들었지만, 물은 그들을 익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영광스러운 광경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큰 몸은 아름답고 빛나는 흰색 옷으로 배열되어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천천히 땅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이 때 나는 잠에서 깰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의 사역을 보았던 것입니다. 7 월 25 일에 본 똑같은 계시와 비전이 다시 7 월 27 일 새벽 2:30 에 제게 주어졌습니다.

